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7
김기동 보은군 자연보호 협의회장 인터뷰

8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23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유화순 이장 인터뷰

12 대청호와 함께하는 양서·파충류 4

18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9

24 정책&이슈

28 사업보고

38 대청호 뉴스&뉴스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32

발행일 2021. 11. 30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서화천 민관합동 대청결운동 기념사진 모습.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효율적인 수질오염원 제거 성과를 냈습니다. 각 지역별 행정과 주민들의 호흡이 돋보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거버넌스 활동내역이 궁금하시다면 꼭 보러오세요~!(관련 지면 32~33쪽)

글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간사

보은 환경운동의 산증인, 김기동 대청호 지킴이

김기동 보은군 자연보호 협의회장 인터뷰

올해로 40년째, 한 평생을 대청호 활동에 전념한 김기동 회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 평생을 대청호 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보은군 자연보호 협의회 김기동 회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중순에 김기동 회장댁을 방문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몰민이지만 대청댐 보호에 앞장서다

- 김기동 회장의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

김기동 회장의 고향은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다. 신곡리에서 20대 청춘을 보내다 마을이 수몰되었다고 한다. 수몰 후에는 상경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고향을 잠시 보기 위해 내려왔으나 대청댐 쓰레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대청호 수변 정화활동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1구입니다. 1구는 면 소재지였고, 학교나 농협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 수는 약 천 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5일장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마을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주하다보니 현재는 학교에 학생 수가 약 20명도 안 됩니다. 올해로 정확히 70세가 되었는데 수몰 시점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수몰 후, 서울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고향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당시 대청댐으로 떠내려 온 쓰레기양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객지생활이 싫었습니다. 1981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쓰레기 수거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981년부터 계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89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초대와 격려도 받았습니다. 저는 보수에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고향, 자연에 대한 사명감으로 임했습니다."

김기동 회장 약력 및 수상내역

1989. 대청댐지킴이 1호
2003. 환경부장관 표창
2012. 금강환경대상 환경운동부문 최우수상(금강유역청, 중도일보 주관)
2018.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환경위원회, 환경미디어 주최)
· 보은군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현)
·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자연보호기관 등 다수 강의, 강연

김기동 회장의 노력으로 1989년 대청댐 지킴이 1호로 선정되었다. 1991년에는 부인 한명옥 씨가 대청댐 지킴이 2호로 선정되었다. 부부 환경 지킴이는 이들이 최초이다. 김기동 회장의 곁에는 아내의 든든한 조력이 있었다. 김기동 회장의 삶은 환경운동의 산증인이었음을 느낀다.

여러 단체와의 인연

- 여러 단체와 만나게 된 과정,
간략한 소개 등에 대해 여쭤 보았다.

"보은군 자연보호 협의회가 40주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2대째 회장으로 있습니다. 초창기 이 단체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으로부터 사무국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회원 수는 3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일 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정기총회 때 초대 회장이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체를 운영할 때 회비를 걷지 않았습니다. 홍수기에는 대청호로 농약병이 떠내려 왔습니다. 일 년에 대략 5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 된 농약병을 팔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수익으로 단체 조끼를 맞추고, 모자에 새마크를 달았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회원수가 94명이 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대청호보호회라는 단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마을이 수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서로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출향인인 고향 선후배끼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대청호 향우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해 출향인인 고향 선후배끼리는 서로 간 이산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같은 주민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청호보호회를 통해 출향인 출신 선후배끼리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70명 정도 됩니다. 주로 회원은 대전에서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고향 생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17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호천보호회는 환경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현재 고문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원 수는 현재 197명이나 됩니다. 이 모임은 환경오염 방지 특별지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모두 잘되니 뿌듯합니다. 회원들이 협조를 잘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다양한 수식어의 소유자

-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인상 깊었던 점을 여쭤 보았다.

"저는 배를 타고 쓰레기 줍는 것이 일상생활입니다. 겨울철에 배를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미끄러져 물에 빠지기도 하고, 상류에서 떠내려 온 패목에 못이 박혀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발을 뚫고 못이 박힌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환경에 무색했습니다. 환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소각을 했습니다. 그 연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장을 30대부터 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미화원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마다했습니다. 직업이 있으면 대청호 지킴이에 소홀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는 대청호 지킴이 활동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쓰레기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그 곳에 제 사비로 쓰레기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청호에 대해 그만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파수꾼, 대청호 지킴이라는 여러 수식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보은군 자연보호협의회 분기별 정화활동

대청호 수변 정화활동 연설

지금처럼만…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대해 하고픈 말이나 당부의 말을 부탁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 이건희 상임이사와 염우 대표를 많이 뵙기도 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당부를 하자면 소식지 발행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환경 활동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분들을 소개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현재 소식지 발행처럼 꾸준히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툰베리가 나오기를…

- 최근 환경 이슈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들어보았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가정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주부들의 역할이 큽니다. 세제도 천연제품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방침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기 차, 수소 차의 시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친환경제품이 아니면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기업에서는 자연스레 친환경적인 제품을 출시할 것입니다. 장바구니 규제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비닐 대신 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큰 화제입니다. 유럽에서는 툰베리로 인해 빨대, 플라스틱 사용이 줄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 시 툰베리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툰베리처럼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갈 환경운동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출향인 고향 선후배

"최근 들어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 상승 문제에 무관심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류들이 이 지구상에서 생존 가능할까 의문도 듭니다. 흔히 볼 수 있던 식물도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와 공존하려면 심각성을 갖고 환경보호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김기동 회장의 철학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들으니 감동과 존경심이 들기도 했다. 또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김기동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응원을 보낸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우리 마을은 역량 강화 교육으로 행복을 먹고산답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유화순 이장 인터뷰

가을과 겨울 사이, 추수를 마친 들판엔 볏짚원형곤포사일리지가 뒹굴고, 가로수 잎은 절반이 떨어졌고, 숲은 겨울나기 준비로 분주한 모양새다. 고운 햇살이 마을 탐방을 앞둔 내 가슴을 비추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다.

서대전 IC에서 고속도를 타고 회인 IC로 빠져나왔다.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동네에 접한 큰 길에 들어섰다. 피반령과 대청호 사이에 자리한 영해박씨 집성촌으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서는 아주 오래된 듯한 둥구나무가 반기고 골목 담장엔 동화 같은 벽화가 정겨움을 더했다. 여러 군데 돌담이 쌓여 아주 당연히 친환경적인 느낌이 강한 마을이다.

마을 회관에서 유화순 이장님(71세)이 반기셨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가 담겨 있었고, 자근자근 사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속리산 내송리 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중매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1974년에 눌곡리에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먹기 살기가 힘든 시기였다. 통일벼가 나오면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 1976년도에는 눌곡리 부녀회가 결성되었고 유 이장은 부녀회 총무를 오래 했다. 신랑이 정미소를 운영하여 살림을 돕다가 마을 이장도 맡게 되었다. 2년 차 이장으로 마을 곳곳을 누비며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유 이장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다

“어휴, 제가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어요. 서울대에서 국악을 전공하여 동아리 친구들과 우리 마을에 와서 일손돕기를 하고 공연을 하는 등 능력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능력 있는 100인 예술인에도 뽑혔고요. 그게 참 보람이지요. 29세부터 남편이랑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그저 평범하게 큰 고생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나 한다는 지게질, 산 나무하기, 대추 농사짓기 등 힘든 일도 많이 했다. 김소월을 비롯한 서정 시인을 접하고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며 문학소녀로 성장했다.

이제 2년 차 이장인데도 마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동네 두 개 경로당 새 단장, 사랑방 찻집 만들기, 마을 창고 정비, 느티나무 아래에 음악회를 위한 무대 장치 마련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의 노력과 협력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다양한 청소 도구를 샀고 음식 지원도 받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잔치한다는 느낌으로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포크레인 지원, 아름다운 도랑 만들기, 깨끗한 물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등 매우 알찬 사업으로 확장됐다. 유화순 이장은 그러한 과정에서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올해는 회인천 수질 개선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질 개선을 위한 설비가 이루어졌고 마을 정화를 위한 활동이 진행됐다. 잘못된 쓰레기 투기를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내년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운영하면서 농산물 판매도 병행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운영자를 두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도전하고자 한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전임 이장과 힘을 합쳐 마을 가꾸기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예산을 지원 받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단장했다.

마을 자랑을 부탁했다

"우리 마을은 영해 박씨 집성촌이랍니다. 박문호 선생부터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마을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면장부터 고위직까지 유명 인물이 많이 배출됐답니다. 그러한 힘으로 면 단위인데도 보은군보다 먼저 전기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강했고 자존감이 대단한 마을이지요."

톨게이트가 바로 옆이고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왔다. 약 70여 호가 있고, 110명 주민이 서로서로 협력하고 인심 좋은 마을로 정평이 나 있다. 소나 돼지를 키우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이 축사 없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대청호 상류 지역으로서 회인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기 좋은 마을로 우뚝 섰다.

눌곡리의 주요 농산물은 마늘, 대추, 곶감, 밤, 배추, 쌀, 사과 등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회인면 25개 부락 중 돌담협동조합을 유일하게 만들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유 이장은 마을 사람들이 온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고 강조한다. 이장으로서 마을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면 주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하여 진행한다. 석회질과 철분이 많아 식수원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5월경에 보은에서 상수도가 들어오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해결돼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친환경 비누와 세제를 지원 받아 쓰고 있으며 마을 도랑마다 정화 시설 등이 되어 있어 깨끗한 마을로 정평이 나 있다.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협력을 이어가는 터라 대청호 상류 마을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역량 강화 교육은 눌곡리의 자랑이다. 원예 교육, 치매 예방 운동, 리더십 특강, 협동의 가치, 협동조합 운영, 커피와 차 교육 등 총 24회 차로 운영되는 교육에 참여하여 마을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마을 초입의 입석에 눌곡리 향약이 눈에 띈다. '옛 모습을 최대한 보존, 복원하여 전통마을을 유지한다. 전통과 청정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 사업과 기금 조성을 통해 고르게 잘 사는 마을을 만든다. 마을의 모든 일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정하고, 주민들은 정해진 마을 일에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최대한 참여한다.'는 것인데, 유화순 이장님과 인터뷰를 나누고 보니 향약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 보였다.

인터뷰 끝자락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부탁했다

"대청호와 관계되는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대청호 소식지 취재를 마치며

오랜 기간 대청호 소식지에 글을 썼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로부터 수많은 마을의 이장님들까지 뵙는 분들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진실한 분들의 가르침을 받아 현장 교사로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대청호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의 노력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대청호 주변 마을마다 대청호 보전운동본부가 함께 하고 있었고, 민관군의 협력 또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살기 좋은 마을로 성장하는 모습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는 결 고운 에너지가 대청호 주변 마을 곳곳마다 가득합니다. 그 동안 뵈어온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청호 소식지 취재를 마치며,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박병춘 올림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에서 쟁기발개구리와 나무개구리를 만나다

대청호 풍광입니다

대청댐은 대전과 청주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수라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장수의 뜬봉샘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굽이굽이 돌아서 대청댐에서 큰 호수를 이룹니다. 대청호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보면 마치 남해의 다도해와 같습니다. 해안의 모습이나 육지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도 남해의 다도해를 닮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일, 여름의 끝자락이며, 가을의 초입입니다. 올해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여 장마철에는 비가 오지 않고, 마른장마를 이루더니 8월말이 되니 늦은 장마로 며칠간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 요즘은 과일과 곡식이 익어야 하니 비가 적당히 와야 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반, 농부가 반 짓는다고 하는 말이 실감 납니다.

모처럼 햇살이 보여 카메라를 메고 대청호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저는 요즘 차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지내다 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가용 없이도 너무나 생활을 잘했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청호까지는 버스를 세 번 갈아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청댐행의 시간을 맞추어야 하므로 집에서는 한 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버스에 몸을 싣고 나니 매운 고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세 번째 버스는 시골에서 출발하여 도시를 지나 다시 시골로 가는 차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은 고추를 말려서 방앗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께서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내려 달라고 막무가내입니다. 기사님은 안전상 안 된다고 하면서 차를 정류장에 세우고 고추 자루를 들어서 운반을 해 드린 후, 출발을 합니다.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차에는 손님이 저 혼자뿐 입니다. “아뿔싸, 내가 고추 자루를 들어야 하는데…….”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을 달립니다.

산도, 물도, 하늘도, 구름도 도심과 너무도 달라 보입니다. 버스를 타야만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마지막 손님도 혼자입니다. 대청댐주차장에 도착하여 계단을 오르니 망망대해, 남해와 같은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침 오늘은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아 산과 물과 구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족과 온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습니다. 나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따라 셔터의 소리가 경쾌합니다. 카메라도 날씨를 알아보는 듯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대청호를 뒤에 두고 강변으로 걸어 봅니다. 강변 옆에는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멀리 보니 낯익은 새가 보입니다. 온몸이 흰색으로 단장한 백로무리입니다. 강물이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고, 연두색의 버드나무 위에서 하얀색의 백로가 앉아 있으니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강의 양쪽에는 낮고 높은 산들이 호위를 하며 녹색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늦여름, 초가을 날씨와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강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니 “차윤주·차윤도 효자 정려각비”라는 팻말이 나옵니다. 그 위로

차윤주·차윤도 효자 정려각비입니다

올라가 보니 얕은 언덕 위에 큰 노송이 두 그루 있고 옆에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안에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정려각비는 조선 정조 때, 20여 리 떨어진 어버이의 묘소를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묘 호곡한 형 차윤주와 모친이 병으로 눕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인육개탕을 끓여 완쾌하게 하였다고 전해지는 동생 차윤도의 비석입니다. 고종 17년, 조정에서는 재목과 목수를 보내어 효자 정문을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부모님에 대한 효심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공자, 맹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1.5℃ 올리지 말자는 경고입니다

정려각비를 지나니 새롭게 단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넷제로는 당신이다."라는 큰 문구가 보입니다. 건물 앞에는 무환자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무환자나무의 열매를 이용하면 세제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넷제로"란 화석연료 등으로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인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적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에너지 관련 일, 친환경 제품, 지역 농산물 등을 팔면서 넷제로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넷제로와 건물과 주변 환경이 참 잘 어울립니다. 1층에는 수세미를 비롯하여 친환경 제품이 있고, 2층에는 넷제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2층의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어디선가 아주 낯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맹"-"꽁"-……바로 맹꽁이(쟁기발개구리) 소리입니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니 소리가 더 우렁차게 들립니다. 강변 쪽을 보니 큰 버드나무 숲이 보이고 그 아래에서 맹꽁이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으니 때로 모여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계절상, 맹꽁이가 우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울까요? 아마 아직 올해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있나 봅니다.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카메라를 메고 버드나무 숲으로 뛰어 갔습니다. 숲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고 풀이 많습니다. 맹꽁이는 저수지나 방죽처럼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에 알을 낳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이는 습지에 알을 낳습니다. 바로 옆에 논에 물이 고여 있어도 그곳에 낳지 않고 꼭 비온 후 고여 있는 습지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곳은 며칠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말라 알과 올챙이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맹꽁이가 이런 장소를 선호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 저수지나 방죽, 논에는 맹꽁이의 알이나 올챙이를 노리는 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적으로 알을 노리는 소금쟁이가 있고, 올챙이를 노리는 백로, 맹꽁이를 노리는 왜가리가 있습니다. 물이 말라서 알이나 올챙이가 모두 죽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곳이 비만 적당히 오면 종족을 보존하기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강과 습지와 풀과 먹이가 있는 곳, 이곳은 맹꽁이가 살아가기에 안성맞춤 같습니다. 넷제로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노라면, 맹꽁이 소리가 흥을 돋우어 주어 책이 속속 들어옵니다.

울고 있는 맹꽁이 수컷입니다

사진을 찍고 다시 넷제로 공판장으로 왔습니다. 마당에는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병충해도 강하고 잎이 무성하여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며 아래에서 쉬기 좋습니다. 수명도 길어 오래된 동네의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가 꼭 한 그루씩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느티나무를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월대보름이나 중요한 날은 이 느티나무 아래

느티나무입니다

울고 있는 청개구리입니다

에서 동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금줄을 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느티나무 아래에도 의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앉아 쉬고 있는데, 또 낯익은 녀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의자 옆 탁자에 이 녀석이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물과 땅이 아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무에 올라 갈 수 있는 개구리, 바로 나무개구리(청개구리)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작고 색깔도 고우며 귀여워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로고로 이용하기도 하고, 선전에서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나 소설의 단골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우 시인은 2020년 6월 월간지 “샘터”에서 청개구리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6월의 소낙비

청개구리가 울음주머니에서 청매실을 왁다글
왁다글
쏟아낸다.

청개구리 울음주머니에서 닥다글닥다글 굴러
나오는
청매실.

소낙비가 왁다글왁다글 닥다글닥다글 왁다글
닥다글 자루에
담아간다.

청개구리는 빨판이 있어서 나무나 풀에 올라가기를 좋아 합니다. 개구리계의 스파이더맨이라고 할까요. 이런 귀여운 녀석이 넷제로 공판장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이곳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이야기지요.

길을 건너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일찍 심은 벼들은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벼를 베는 모습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낫으로 모두 벼를 베었는데 이제 트렉터로 벱니다. 마을을 지나는 길에는 감자, 가지, 고추, 참깨들이 가을의 풍성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네를 지나서 뒷동산의 구릉지대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구릉지대의 높은 곳에 기와집 한 채가 보입니다. 현판을 보니 “취백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제월당 송규렴이 제자를 모아 학문을

취백정입니다

익어가는 사과입니다

가르친 강학처입니다. 취백정 앞에서 금강을 내려 보니 넓은 구릉지대와 높은 산, 큰 강물이 말없이 흘러갑니다. 벼슬을 다 놓고 말년에 이곳에서 보낸 선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려오는 길, 과수원의 빨간 사과가 나를 반겨 줍니다. 대청호 미호동의 가을이 익어 갑니다.

※ 참고문헌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지성사 문광연
꼬리에 꼬리를 무는『풀 이야기』지성사 유기억

글 여규용 6기 대청호 해설사

명상공원길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본 대청호, 그리고 환경인식

고향처럼 느껴지는 대청호변을 찾는다.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이 지칠 때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추는 곳은 이곳 대청호변이다.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기도 하고 풍경도 좋은 이곳 '명상공원길'이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어릴 적 떠나온 고향 길을 걷는 기분이 들곤 한다. 일명 슬픈 연가길이라고도 하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다. 이 곳에서 약 2주간에 걸쳐 대청호 환경 사진전을 열었다. '걸어야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환경 사진전

환경 사진전에 참여하는 시민들

풍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던 환경 사진전이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양이다. '나의 친환경 생활지수'에 붙여진 스티커가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홍수를 이룬다.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탄소 중립을 이야기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환경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심각성을 모두에게 알리고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대청호 사진전도 기획하게 되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먹는 물인 대청호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걸어 보는 명상공원길이 오백리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풍경도 뛰어난 터라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찾는 곳에 두 사람 세 사람 더 모이게 되면 그만큼 오염될 확률은 커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건너편 카페 근처에서 배회하던 오리 떼들이 여기까지 건너와서 놀다 가곤 한다. 명상공원길 호수 변으로 모여들어 걷는 길에 배변을 하여 발에 밟힐까 봐 조심스럽게 걸어야 할 때도 있다. 오리들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가지고 온 과자 등 먹을 것을 주어버릇하여 거기에 적응 한 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최근 들어 내가 찾았을 때 직접 목격한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사진전을 기회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곳을 찾아보았다. 전시회를 시작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이곳을 걸어 보았고 전시회 중간엔 오후쯤 들러 게시된 사진들과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으며 끝나기 며칠 전엔 저녁 무렵에 들러 명상공원길을 걸어 보았다. 시간대별로 찾는 시민들의 연령대와 관심사항이 다르기에 내게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찾아보는 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게시된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는 분, 그냥 대충 보고 지나치는 분, 처음부터 관심 없다는 양 지나치시는 분,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였다. 그러나 무심히 지나치는 분들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취지의 사진전이냐고 묻는 분들이 더 많았다.

환경 사진전에 보여준 관심

그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 옥천에 사시는 교수님이신데 지인 분들과 오셨다가 나를 만나게 되었다. 취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의 활동 상황과 환경 보전 노력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일 하신다며 우리의 활동을 이해하시고는 지금까지 무관심했었던 것을 반성한다는 뜻 깊은 말씀으로 응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 보전 운동에 많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주셨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전파되는 것을 느끼며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 대청호 해설사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 힘을 보태 준 덕분이 아닌가 싶다. 올해에는 해설사 사진문학팀 주관으로 사진 전시회가 추진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대청호해설사회 주관으로 변경되어 개최됨으로서 더 활성화된 기획내용을 기대해 본다.

다시 발걸음을 호숫가로 옮겨 본다. 전시회를 위하여 아침 일찍 찾은 명상공원길엔 안개가 살포시 내려 앉아 있어서 꿈길을 걷듯 멋진 풍경을 선물해 주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물안개까지 내려 있으니 이런 풍경은 사진 찍는 사진가들에게는 환상적인 풍경인 것을 잘 안다. 그래서인지 호숫가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진가들이 물안개를 따라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사진 촬영에 여념

명상공원길 공원에 앉아서

이 없었다. 물안개는 햇살이 퍼짐과 동시에 금방 사라진다. 그 사라지기 전의 찰나의 순간을 잘 잡아야 생각했던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른 아침 이곳을 찾은 보람이 있는 것이다. 나는 멀리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 그분들 뒷모습을 찍었다. 이것 또한 재미있는 풍경들이 담길 수 있는 구도인 것이다.

요즘에는 대청호 수위가 만수위를 넘본다. 호수 변에 찰랑이는 물결을 보며 걷는 기분은 참으로 행복하기까지 하다. 몽글 몽글 퍼지는 물안개 저 넘어 물오리 떼들 점점이 떠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고즈넉한 풍경이다. 이런 풍경에는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지금의 공원길 걷는 코스보다 위쪽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하나 더 있는데 호수 물이 넘쳐서 그 길로는 걸을 수가 없다. 그 코스가 사실 더 시골스럽고 볼 것과 생각 할 것이 많은 길이라 생각한다. 그 길은 데크길이 아닌 흙길로 그야말로 걸으면 더 많은 풍경이 보이는 길이다. 발아래 찰랑이는 물결의 모습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물결을 보며 동심에 젖어 보기 참 좋은 길이 바로 그곳에 있다. 한여

명상공원길을 향하여

름 그길로 탐방에 나섰을 때 호숫가 모래톱에서 커다란 조개를 발견한 적이 있다. 그 조개를 보며 대청호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 날이기도 했다. 그 길 한 모퉁이 버드나무 우거진 숲에는 아름다운 새 '후투티'가 산다. 언젠가 그 길을 걷다가 그 새를 촬영하려고 작은 텐트를 치고 나무를 향해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곳 대청호에는 다양한 식물과 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 걷는 길 양쪽으로는 갈대가 우거지고 호숫가 언저리엔 키 작은 개여뀌가 빨갛게 피어나고 작은 도랑물가엔 클로버가 들판을 이룬 곳, 생물다양성을 회복해 가는 대청호 그래서 더욱 가꾸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청호, 이곳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는 '환경보전'이다. 지금까지 무심했던 탄소배출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나서야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나서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재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백리길 걷다가 잠시 쉬는 중

안타까운 것은 그에 따른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데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을 규제해야 하는데 규제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모든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사후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하물며 국가 정책입안과 시행은 더욱 그렇다.

요즘 학교 교육 중에 환경교육의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추세이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세종지역 몇몇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모든 교장선생님들께서 생태교육을 겸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감성을 어루만져 줄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교육과정은 지속성을 띄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생애주기별 맞춤 환경 교육이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모아 교육청에 전달하고 내년도 교육과정에 필히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교육현장의 이런 변화가 앞으로 환경교육이 가지고 올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지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고 오염되어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것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계절도 가을을 넘어 겨울로 접어든다. 아

름답던 단풍도 빛을 다하고 열심히 피워 냈던 꽃들도 씨앗을 남기며 지고 있다. 남겨진 씨앗 속에는 한여름 지나오며 느꼈을 사연들을 그들만의 언어로 남겨 놓았을 것이다. 거기엔 우리 인간들이 못살게 굴었던 사연도 담겼을지 모른다. 새 봄에 피워낼 꽃잎을 보면 안다. 햇살이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바람은 또 왜 그리 밉살스러웠는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탐욕스럽게 꽃을 괴롭혔는지 그들만의 비밀 대화 속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말 못하는 미물이라고 소홀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해야 할 이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 숲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말로만 탄소배출과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도 나 하나쯤 하는 사소한 생각으로 무심하게 넘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가 하나 되어 지켜 가야 한다. 모두가 내년을 위한 월동에 드는 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청호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날까지 노력하자.

글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리고 SK하이닉스LNG발전소

TV를 틀면 주로 나오는 소식은 코로나19나 정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뉴스가 하나 있다. 바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쓰레기 관련 뉴스들이다. 급기야는, 예전에 공익광고에서나 봤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기업 광고에 나오고 있다. 배우 '이승기'가 쓰레기를 줍고 자동차 회사 '볼보'의 광고에서는 빙하가 무너진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대세'가 된 모양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개념부터 그렇다.

'탄소중립'하면 "이산화탄소와 탄소는 다른 거야?"라고 묻는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 등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그냥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다. 어쨌건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럼 '중립(中立)'은 뭐야? '제로(Zero)'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을 전혀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가 흡수하거나 포집기술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만 배출해서 결과적으로 순배출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게 '탄소중립'이다. 어쨌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제로'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넷제로(Net Zero)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기후위기는? 탄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기후가 변한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폭염,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재난과 위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름이면 폭염이 일상이고 작년에는 50일 넘는 장마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호주와 시베리아, 북미의 폭염과 산불, 북유럽의 홍수 등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2019년부터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2020년 6월 전국의 226개 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있었고,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8월 초에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자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 등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종교계와 청소년 위원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3가지) 역시 문제가 많았다. 탄소중립시나리오임에도 탄소중립이 안 되는 안을 2개나 포함하는 시나리오였고, 2050년 에너지 수요를 너무 과도하게 산정하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3개의 시나리오 모두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5310만톤으로 같아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였다. 그리고 언제 상용화될지도 모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문제였다. 하지만 지역에서 논란인 LNG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탄소중립안인 3안은 LNG발전소 역시 퇴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LNG발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퇴출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었다.

그리고 10월 18일,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2050년 탄소중립이 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논란이 된 국외 감축분은 포함하지 않았고,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등 2가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당연히 배출 자체를 줄이는 A안

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탄소포집 저장활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놓고 LNG를 계속 하겠다는 B안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 아무리 LNG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LNG도 화학연료이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퇴출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다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온폐수, 발암성물질, 온실가스 등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너무 크다. 그래서 2019년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2019년 여름에는 청주시민 700여명 설문을 통해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여론을 확인하였고, 2019년 겨울에는 '청주시민 500인 원탁회의'에서 청주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 저지가 뽑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장기간의 환경부 농성

과 청와대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집회'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이 본격화되면서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뿐 아니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연대체들도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활동에 함께 하게 되었다. 올해는 SK하이닉스부터 청주시내까지 7㎞를 걷는 '청주시민 도보행진', '청주시청 집회'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1월 8일 청주시는 청주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의 연대체들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대한 규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LNG발전소의 문제점 등을 청주시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내 전국 의제화 할 예정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참여 기관 단체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LNG발전 역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네트워크 사업 총괄보고

그 어느 시기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1년 “소유역거버넌스의 내실화와 대청호 유역통합관리체계시도”라는 사업기조를 통해 네트워크별로 구성한 소유역거버넌스 내실화를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무주네트워크, 금산네트워크, 대전네트워크 간사단체가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되었다. 그러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8개 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먼저 대청호 최상류지역 네트워크인 무주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소유역거버넌스, 회원마을 가꾸기, 금강마실 걷기라는 사업으로 수목식재, 분리수거함 설치, 친 환경제품 만들기,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금산네트워크에서는 추풍천, 원골금강유역, 마달피, 천내리 등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금산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천내습지 가시박생태연구를 통해 가시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래세대에도 알 수 있게 하는 활동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시박 제거작업도 함께했다.

영동네트워크에서는 호탄교하천, 범화리, 오계리 등 마을 정화활동과 함께 물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법화천 소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MOU를 체결하여 구촌리 새마을회, 부녀회와 함께 농약병수거, 주민환경교육, 정화활동 등 실천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용산면 법화리, 심천면 태소마을에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금산네트워크-정화활동

옥천네트워크-찾아가는 환경교육

보은네트워크-현수막 설치

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환경교육도 함께했다.

옥천네트워크에서는 군북면 향수뜰마을, 안남면 배바우도서관을 찾아가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금구천 일대 정화활동을 하여 맑은 금구천만들기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안남천 소유역협의회를 통해 화학리, 연주1리, 연주2리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보은네트워크에서는 회인천소유역 물환경거버넌스로 분저리마을과 산수리마을 환경교육, 정화활동, 수목식재, 잡목제거 및 정리, 대청호주변 불법쓰레기 배출지역 현수막 설치 등의 활동을 했다. 그리고 생태탐방 및 환경정화활동으로 동학공원, 삼년산성, 선애마을, 분저리가 속한 성족천, 보청천, 회인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환경교육으로 천연바디워시, 주방세제, 세탁세제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대전네트워크에서는 주산동과 효평동에 둠벙 조성을 위한 활동과 함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주산동에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넷제로 공판장에서 넷제로프리마켓 행사를 개최하고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청호 농산물을 가정으로 전달해 주는 대청호보따리도 진행했다.

청주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대청호 주민하천관리단 하천관리활동을 통해 문의권역 7개 마을 17개구간 정화활동 및 하천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대청호 맑은 물 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정화활동하고 어울림의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지난해에 이어 병천천 소유역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병천천 감시단 조직과 실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업을 진행해 온 네트워크 실무자 분들에게 감사하며, 2022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00만 인구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개선을 부탁드린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대청호보전운동의 씽크탱크 '정책연구위원회'

"현장에 답이 있다" 현안모니터링의 지속화 추진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배병욱 대전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월 19일 남강댐 로컬푸드 현장을 견학하면서 민관협력의 기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연구위원 8명, 대청호해설사, 마을활동가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진주 남강댐지사를 방문, 지역현황 및 에코마켓 '그루'를 만들고 운영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상황을 전해 들으며, 대청호상류지역 상생을 위하여 접목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남강댐지사 김영웅 부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생태, 친환경, 상생 등의 화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도 앞장서서 실질적인 주민지원정책에 나서야 한다"며 "어느 영역이나 개인 혼자 일을 만들지는 못하는 법. 함께 도와주는 부서 직원들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니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히면서 "남강댐 에코마켓 그루를 계기로 수자원공사에서도 좀 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면 댐 상하류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더 좋지 않겠는가" 반문하며 건강하고 확고한 친환경적 가치관을 피력했다.

유진채 정책연구위원은 "에코마켓 그루가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남강댐 주변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과 수산물, 지역특산품 등이 전시되고 그 지역사람들이 소비해 주는 로컬푸드운동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에서 부러워할 만하다"며 "대청호 주변에서도 수자원공사, 관계행정기관 등이 협력하여 댐 상류지역 생산자들의 수익에 도움되는 정책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 송촌동에서 마을 자원 활동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임병희 씨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댐주변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로컬푸드운동을 전개하고 실제 매장을 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하고 의미가 크다"며 "대청댐 주변에서도 상류지역의 건강한 먹거리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오랫동안 대청호해설사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식 씨는 "대청호 지분이 가장 많은 옥천지역에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유기농업 하던 사람들도 판로가 없고 힘들어서 죄다 관행농업으로 바꾼 지 오래"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어느 정도 공공영역에서 소비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주면 농촌마을에서도 다시 친환경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니 수자원공사 본사 차원에서 우리 땅 우리 물 살리기 위한 주민지원정책을 펼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정책연구위원회는 '대청호유역 주민 물복지 불평등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연구'와 '국내 상수원지역 수질개선 모범사례 발굴 및 대청호활용방안연구' 등 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현안모니터링 2회, 정책포럼 1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3차 전체회의 겸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물환경교육을 통해 생태전환의 계기 마련

우리단체는 대전충청권 450만여 명의 생명수로 자리 잡은 대청호를 주제로 기획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과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대청호 유역 내 초중고 13개 학교 총 65개 학급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미래세대 물교육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환경교육을 지양하고 일상의 경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험과 경험위주의 물 환경교실, 대청호생태놀이, 우리 동네 생태하천지도 만들기 등의 다양성을 확보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전외삼중학교의 경우 4월 30일부터 1학년 6개 학급이 총 10회에 걸쳐 반석천 생태하천지도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학습에 참여했다. 학교 인근 거리 내 반석천 도보탐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약도, 하천유형, 오염원방지시설은 물론 생태채집 등 기록하며 마무리 시간에 그 내용을 토대로 반석천 생태하천지도를 완성했다.

신탄진용정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찾아가는 물 환경교실에 참여했다. 저학년과 고학년용 맞춤교안으로 퀴즈, 교구놀이, 물 사랑 다짐판 만들기 등 체험을 강화시켜 초등환경교육이 진행됐다. 미흡한 부분과 과잉부분에 대한 세세한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보완과정이 필요하다는 등 대청호해설사들의 평가회의가 계속됨으로써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지향하는 교육사업은 희망적이라 자신한다.

대전제일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20명이 물사랑지킴이단에 신청했다. 학교에서부터 담당교사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청호를 찾는다. 때론 버스를 놓쳐 1시간씩 늦어지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 1시간 더 연장해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대청호물사랑지킴이단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듯, 참가자와 진행자 모두 일심동체로 자연 속에 동화된다. 그것이면 족하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 생태전환교육이다.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고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략처럼 기존의 일회성 체험이 일상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대청호유역내에도 생태전환학교가 운영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대해 본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서화천 환경지킴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대청호 직유입하천 중심 수질개선 실천활동 맹활약

금산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두 개의 작은 물줄기로 금산 추풍천과 금천천을 이루며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에서 합수되는 서화천은 옥천군 군북면 일대를 적시며 추소리 대청댐으로 직접 유입된다.

금산군 추부면에서 대청호에 이르기까지 농·공용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하천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각종 농업폐기물이 산적하고 생활하수로 몸살을 앓는다. 이를 포함한 축산폐수도 한몫 보탠다. 그리하여 매년 햇살이 따가운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녹색 띠를 이룬 녹조류가 성행하여 독성을 가진 비점오염원 물줄기라는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옥천읍을 관통하는 금구천의 경우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곳이 다수로 파악되면서 우수토구를 넘어 하천수에 유입되는 오수와 우수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걱정을 보태고 있다.

우리단체는 올해에도 여전히 서화천 유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방치축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며 축분 관리요령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농사에 활용되었던 각종 수질오염원과 하천수 관리를 위한 실천 활동에 집중했다. 그사이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의지가 확대되었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어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지역민으로 구성된 환경리더와 모니터링단의 기본적인 조사활동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간 마찰을 줄이고 환경실천의지를 북돋는 활동이 생활 속 실행력으로 작용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올해 실천마을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군서면 월전리, 오동1리, 은행리, 군북면 자모리, 옥천읍 마항리 주민 등 총 5개 마을에서 총 20회 주민환경교육 및 실천 활동에 참여하였고, 군북면 이백2리, 금산군 추부면 용지1리 등 2개 마을에서 불법쓰레기 제로마을 만들기 활동에 동참, 총 8회 주민환경교육 및 실천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어떤 마을이든 첫 회 때와 마지막 차시 때 활동력의 차이는 매우 컸다. 알게 된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천한다는 말은 진리가 되었다. 하여 수질개선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을활동과 연계한 주민참여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29일, 3차 운영위원회 겸 각 지역에서 민관합동 대청결운동을 진행했다. 추부면 35명, 군서면 48명, 군북면 37명 총 120명이 각 읍면별로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일제히 정화활동에 돌입, 1톤 트럭 10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민관거버넌스의 실행력이 수질오염원 제거에 성과를 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역별 행정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수행하니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이 증명되는 사례라 정의할 수 있다.

올해 활동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그동안 실천활동에 참여했던 마을주체, 행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서화천유역 내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현안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글 김문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간사

주민들의 단합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증산리 도랑 살리기 사업

증산리 마을은 저수지에서 발원한 하천수가 마을 곳곳의 농수로와 연결되어있다. 그렇다보니 도랑 내, 외부 모두 소각이나 쓰레기 투기가 빈번했었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올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었고, 11월 5일 마지막 마을 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11월 5일 마을회관 내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이 진행되었다. 마을주민 모두 열의가 넘쳤고, 회관 내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무엇보다 마을주민의 환경의식이 많이 함양되었다. 환경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야 된다. 증산리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아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을주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활동 막바지에 환경 제품 기념품과 도시락을 나눠 주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생했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2021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올 해의 가장 큰 결실은 증산리 마을 활동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이면에는 바로 주민들의 단합이 있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주민들의 노력이 빛난 하동리 도랑살리기

올해는 옥천군 군서면 증산리와 하동리에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금강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마을도랑부터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간 축적되어 온 노랑의 오염토 등을 제거하는 도랑정비사업과 수생식물 식재 사업, 주민 정화활동과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자료 제작, 홍보현판 설치 등 홍보사업 등이 있다.

하동리에서는 지난 7월 1일, 1차 정화활동과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었다. 하동리는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4차례의 정화활동을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눠서 실시하였다. 7월 1일 1차 정화활동 및 협약식, 9월 2일 2차 정화활동 및 1차 주민환경교육, 10월 7일 3차 정화활동, 11월 4일 4차 정화활동 및 2차 주민환경교육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 속에 추진되었다. 하동리는 이와 같은 환경활동을 처음 해 보는 마을이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사업을 함께하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가 높아졌다.

지난 10월 23일과 24일에는 도랑공사도 실시되었다. 오랜 동안 퇴적되어 있던 오염토를 준설하고 도랑 복원을 하였고 수질정화식물도 식재하였다.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도랑이 깨끗하게 정리, 복원된 모습을 보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제는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업의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함께하여 성과를 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적극적인 주민 실천 활동으로 수질개선에 앞장서다

이장단협의회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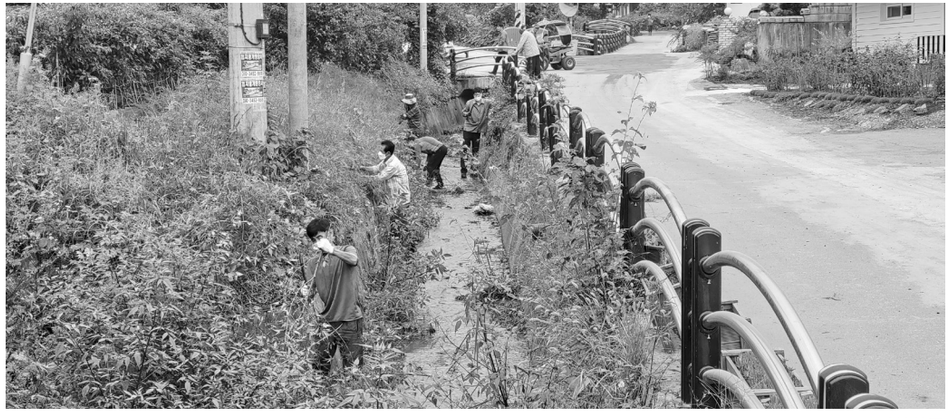
400만 충청도 사람들의 식수이자 생활용수로 활용되는 대청호는 상류에 여러 하천들이 직유입되고 있다.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청호 상류지역을 수질이 좋아야 대청호 또한 수질이 개선된다.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 중 피반령에서 발원하여 회남면 거교리에서 금강본류인 대청호로 흘러들어오는 하천이 바로 회인천이다.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만큼 수질 관리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우리단체는 지난 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하는 민간단체지원사업 통해 회인천 유역에 지역주민들, 관련 기관, 환경관련 학자, 시민단체가 함께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회인천 본류로 유입되는 마을 도랑을 옛도랑 복원하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 수질 개선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도 함께 진행하였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백신으로 개선될 것 같은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다보니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를 진행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1차부터 4차 운영위원회까지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없고 온라인 회의도 어렵다보니 서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메일 활용이 어려운 운영위원분들은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여 의견을 받고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도 지난 2020년에 이어서 회인천 유역 21개 지점을 선정하여 해당 지점 주민들이 모니터링요원으로서 활동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작년에 이어서 함께하는 모니터링단원분들도 계시고, 올해 처음 참여하는 모니터링단분들도 계셨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함께 발대식을 하지 못하고 개별 미팅으로 대체하게 되어 아쉬웠다. 작년에 이어서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회인천 곳곳의 비점오염원 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안내판 설치, 현수막 설치 등 조치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화활동

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마을 정화 활동할 시기에는 부수2리, 오동리, 건천리, 신대리, 죽암2리, 용곡1리, 눌곡리, 송평1리, 용촌2리, 고석리, 신문리 등 작년보다 더 많은 마을과 함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추석 연휴 이전에 진행하여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고된 일정이었지만 주민 분들이 예전보다 참여도가 높고 적극적이어서 변화된 모습에 힘을 얻어 활동할 수 있었다. 2022년도에는 마을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인면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하는 정화활동도 해 볼 계획이다.

회인천 유역에는 오동저수지, 쌍암저수지 등이 있어 낚시꾼을 포함한 향락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그렇다 보니 향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포함한 오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니터링단 제보에 의하면 청주시, 대전시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향락객들의 투기문제는 몇 년째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과, 지자체, 전문기관, 전문가가 모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

금강유역환경청, 멸종위기종 복원 4개 기관과 맞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K-water(환경본부장 이경희)가 22일 대청댐 상류에서 '금강수계 멸종 위기 종 복원 생명 잇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는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아, 옥천군,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참여한다. 이달부터 기간은 2년간이며 예산 규모는 약 2억 원이다.

금강수계 멸종 위기 종 복원 생명 잇기 사업은 금강수계 전 구간을 대상으로 멸종 위기 종 복원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강 상류부터 금강 3개 보 구간까지 연속적인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고 멸종 위기 종을 증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금강수계 멸종 위기 종 복원계획 수립·시행 △금강수계 생태환경조사·서식지 보호활동 △복원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홍보·교육 활동 등이다.

복원목표 멸종위기 어류 대상은 꾸구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으로, 우선 대청댐 유역(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금강변에 꾸구리 1,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총괄, K-water는 사업 시행·모니터링 추진, 옥천군은 사업에 대한 홍보와 행정·재정 지원,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복원사업 홍보·교육과 서식지 보호활동 등을 수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여러 기관과 단체가 주도해 멸종 위기 종을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일보】 2021. 10. 22. 이한영 기자

이번엔 대청호 불법 산지전용…
청주 문의면 카페업주 벌금형

불법 카페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청호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영업을 하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해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카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수로를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행위를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전용돼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재해예방을 위한 (석축 등) 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이 이미 전용한 산지를 인수해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예방 관련해서도 "석축 등의 시설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페 미관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유죄 판결 후 A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A씨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서, 불법 전용한 산지는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2019년 7월 A씨에게 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형사재판이 결론이 난 만큼 조만간 복구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중부매일】 2021. 11. 16. 신동빈 기자

"여행은 청정 대청호로…"
위드 코로나 시작, 옥천군 관광홍보

옥천군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청정자원의 대청호를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일 군에 따르면 '일상으로의 초대, 심(心)쿵! 신(身)쿵! 옥천여행 즐겨찾기'라는 비전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전은 옥천에서 일상을 회복하면 마음과 몸이 즐거워진다는 의미다.

군은 각 유명 관광지에 포토존·무인 관광 안내기를 설치했고 문화관광해설사도 2명 증원됐다.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군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관광 슬로건인 '옥자10 시리즈'를 주제로 한 홍보영상도 제작 중이다.

옥자10은 '옥천 가서 놀자, 먹자, 보자, 걷자, 사자, 쓰자, 자자, 심자, 찍자, 살자'를 요약해 만들어진 슬로건이다.

이 지역의 자연경관과 음식,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를 홍보하면서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작년 2월 만들어졌다.

군은 금강휴게소는 알아도 옥천을 잘 알지 못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휴게소 내부 식당가에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등 '옥천9경' 사진을 내걸기로 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소그룹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미션을 완수했을 경우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관광객 미션투어'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일상회복의 중심에는 관광 활성화가 가장 크다. 지역의 청정자연의 장점을 부각해 위드 코로나에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 2021. 11. 3. 박승룡 기자

대덕구, 제1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성공적'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13일 '온(on)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제1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 8월부터 영화부문과 여행브이로그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고 200여 편이 넘는 작품이 치열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심사에는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임대형 영화감독을 비롯한 영화예술전문가, 지역문화·방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비대면·대면 심사로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심사위원인 임대형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이 제각각 개성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라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어렵사리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부문 영예의 대상은 ▲980g(박준영), 금상은 ▲상규형이 하지 말랬어(김동하), 은상 ▲정인(문정임), ▲여명(이원영), 장려상 ▲문경이네 집(김수현), ▲레터(양재준). ▲웅비와 인간 아닌 친구들(김다민)이 각각 수상했고, 이외에도 10명이 입상했다.

여행브이로그부문 대상은 ▲여행 그너머의 의미를 만나는 곳, 대덕(임재운), 금상 ▲한국 최고로 조용한 가족캠핑장 추천!+아이도, 어른도 즐겁고 건강한 계족산 황톳길!(정민아), 은상 ▲대전, 대덕의 이야기(윤선진)이 각각 수상했고 그 외 3명이 입상했다.

당일 영화제는 지역예술인 밴드의 감성적인 공연과 더불어 수상작 상영회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순서로 각 부문별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영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서, 아름다운 영상미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는 영화들을 재밌게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수상 감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를 종횡무진활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청호를 배경으로 매년 봄에는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이, 가을에는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뉴스】 2021. 11. 14. 김남숙 기자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위례마을살이,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